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9일 목요일 음 3월 17일 (9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7-9°C, 낮 최고 기온은 15-17°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rain, clouds, and temperature.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the day.

주간예보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he next few days.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safety and life weather information like UV index and visibility.

월드뉴스

美 항모 '루스벨트호' 함장 경질 여진 지속

모들리 해군장관 대행 사임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의 승조원 하선과 함장 경질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루스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을 경질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토머스 모들리 해군장관 대행은 7일(현지시간) 사의를 밝혔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를 수리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모들리 대행은 이날 에스퍼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모들리 대행의 사의 표명에 에스퍼 장관이나 백악관이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짐 맥퍼슨 현 육군차관이 해군장관 대행 직무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모들리 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 달라고 상부에 호소 서한을 보낸



경질된 브렛 크로지어 함장.

크로지어 함장을 경질했으며 전날 크로지어 함장을 명칭하라고 비난하는 발언 녹취록이 공개돼 사과했다.

루스벨트호에서는 2000명 정도가 하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오전까지 전날보다 57명 증가한 최소 230명의 승조원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모들리 대행은 앞서 크로지어 함장이 승조원들을 감염 확산 우려에서 구해달라는 서한을 상부에 보낸 뒤 서한이 언론에 공개되자 일부 하선을 개시하면서도 함장의 판단이 극도로 좋지 않았으며 경질했다.

목요일론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2020년은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 10년째가 된다. 제주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는 총 12개소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 중이다.

청송과 무등산 지질공원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미 지정됐으며, 한탄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곧 인증이 확정될 예정이다.

청송과 무등산 지질공원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미 지정됐으며, 한탄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곧 인증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쉼터: 지질공원

은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과 부산 지질공원이 곧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적어도 우리나라는 지질공원 측면에서는 국제적 강국으로 진화 중이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행사 계획도 연기나 취소 혹은 다음 해로 순연 등 차질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여건에 따라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지질공원이 좋

은 장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지질공원은 지오토레일이나 생태탐방로 혹은 역사·문화길이 조성돼 있고, 풍광이 좋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이 많으므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 아주 좋다.

제주도는 180만년 전부터 바다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기 시작해 물속에서만 100만년 동안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물위로 머리를 내민 다음 육상에서 용암이 쌓이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세계지질공원이 된 청송의 주왕산은 7200만년 전에 만들어졌다. 만일 제주도를 나이가 한 살인 유아로 보면 장년인

40세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공룡이 놀던 중생대 말엽인데, 청송에는 그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어 장구한 생명체의 활동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세계지질공원이 된 무등산권 지역(광주, 화순, 담양)의 무등산은 약 8500만~8800만년 전에 형성됐다. 무등산은 세계 각국의 내로라 하는 주상절리에 대해 규모로서 입을 다물게하는데, 최대 지름이 7m 내외에 이르는 압도적인 육각형 기둥모양이 장관이다.

공룡의 멸종에 대한 여러 주장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설도 있었는데, 지금의 사태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가길 기원한다.

열린마당

'사회적 거리두기'의 힘



이지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예년보다 일찍 벗겨지고 만개하고, 춘분이 지난해 벌써 열흘 이상 지났지만, 코로나19 대응행은 아직까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세계를 공포 열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제주에서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전염병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증폭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자는 목소리 또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왕벚꽃축제'를 비롯해 매년 봄 제주에서 열리던 각종 축제들은 취소됐으며, 주요 관광지 또한 임시휴관 및 휴무 조치를 한 상태이다.

지구대에서 또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 확산 초기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를 수시로 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 홍보했으며, 순찰 중 마주치는 주민들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에 대해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관내 순찰 중 종종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봄 정취를 느끼러 나온 많은 인파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격정들이 기우처럼 느껴질 정도로 온정 넘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고사리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주변 파출소에 두고 가는가 하면, 자기 쓰기도 모자란 마스크를 하나 둘 모아 몰래 놔두고 가는 이웃들의 사례를 볼 때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깊은 감명을 받으며 힘이 나곤 한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아직 남아 있는 느낌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간단한 행동 지침 준수로 '코로나 시국'에 하루 빨리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오길 희망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다산, 우리의 청렴을 말하다



송원준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청렴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단어다.

청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묵민심서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져 유배생활 동안에 지은 책이다. 묵민 심서는 유배상태에 있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도정치기에 묵민관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바람으로 만든 지침서이다.

묵민심서나 묵민심서에 나오는 청렴에서 가장 핵심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다.

현대에 와서 백성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애민정신을 나타낸다.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애민정신이 위기사항을 극복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 방역 활동부터 자가격리자 상태를 확인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 시켜 지역 내 상권을 살리려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와 코로나19 확산방지 활동으로 공직자들의 피로가 누적돼 힘들지만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들부터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위기사항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시민장의사' (City Mayor's Doctor) featuring a doctor's phot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골덴라사' (Goldensasa) featuring two men in suits and product information.